



대행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번뇌 재료삼아 공부... 그맛 알면 참나 밝혀”

여러분께 내가 잘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항상 말씀드려온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에 얼마나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진화됨에 따라 몸도 바뀌어 인간까지 왔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누히 하는 말이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금방 다른 말을 할 때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구에만 매달리고 글자놀이에만 매달린다면 이 공부와는 천부당 만부당하게 멀어져 버리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중(中)세계의 쫓고 쫓기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경을 통하고 또는 끝간데 없이 그 차원

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아니 육신 속에 인과로 인해 악업, 선업이 묻혀 있으면서 좋고 나쁜 것이 수없이 나오는데 좋은 것은 잠시 잠깐이고 안좋은 것, 화내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강도질 하는 것, 도둑질 하는 것, 술 먹고 이수라장을 만드는 것 등 일체를 일으키는 그놈이 어디 있는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그러한 의식들이 인연으로 묻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해탈할 수 없이 수만 개가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하나가 뽑히는 것이 부모에게 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살던 악업, 선업을 짊어진 채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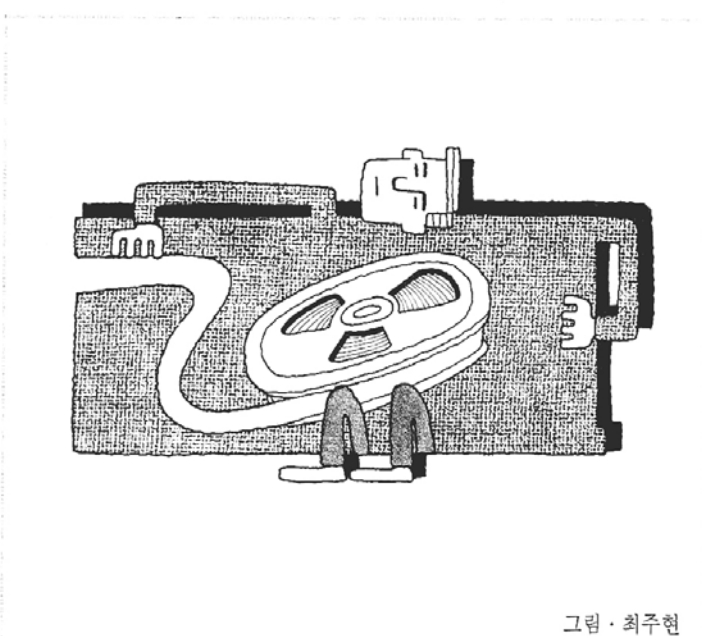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 것만이 악이 아니죠. 상대를 돌로 보지 말아야 하는데 돌로 보고 항상 남을 원망하며 남의 탓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찌 있었으며 어떻게 세상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이 공부하는 데는 여간 지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다 말겨 놓는다면 마음의 눈과 또 육안을 겸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자재로 돌고 날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들을 때, 점검을 해서 안으로 돌립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통신이 되고 또 안으로 들이는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들어간다면 전부 보살로 환한다 이 말입니다.

악업, 선업이 들어 아니라 하나로서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니 끝난 데 없는 진리이자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천백억 화신이 되고 천백억 화신 속에서, 즉 말하자면 중생들이 응해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만 가지 만만 가지로

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혜로워서 부자 부럽지 않게 마음부자가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대장부의 살림살이여서 조금도 가난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당당한 것이며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면 어디서든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묘한 도리를 모른다면 늘 가난하기에 바쁘지요. 가난 뿐만 아니라 재난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또는 병고도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렁이 같은 미물들을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동통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진드기도 있으며, 거위도 있고, 촌쟁이도 있고, 벼룩 같은 것 등 해탈할 수가 없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만 잘 참작해서 들으세요.

왜 이렇게 우리들의 몸 속에 여러 모습들이 들어 있는가? 그것이 곧바로 모두 자기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역사를 볼 때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그 뒤에는 수렴은 공룡시대도 있었죠. 우리 사람이 나기 이전에 미미리리들 그렇게 진화되어서 올라오기 위한 수련으로 수많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바로 정진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뀔 때 되어서 그 걸로 인해서 잡아 먹고, 잡아 먹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진화돼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면서 인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없는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이 되어 가지고 또다시 짐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을 살피며 때 더 잘 알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속에 그러한 모든 것이 악업, 선업으로 묻혀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었다가 하나 하나 나오는 것이니 거기에 속기 마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며, 들이는 것도 말겨서 들이고 내는 것도 말겨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

16면으로 계속

“내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찌 상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을 원망 하지 말고
항상 내 탓으로 돌리세요”

전쟁터에 2등 없듯 마음공부도 2등 없어

에서 끼리끼리 모이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다니며 인과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나 그렇게 되어선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없다면 바깥 경계의 보고 듣는 데로만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만 볼 뿐이지 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생활하는 데도 하나 이익이 없습니다.

바른쪽 두뇌는 물질세계로서의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왼쪽 두뇌는 깊은 속의 거기에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 중에 의학적인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들이고 내는 것도 거기에 점검을 해서 들이고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대로 물질에 끌리고, 정신에 끌리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집은 짓는 중에도 금이 가고 무너지는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치된 악업, 선업이 과거의 것은 현실로 모이고 미래는 아직까지 가지 않았기에 없으니 현재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요하고 강요당해서 악업 선업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 모를 때 때문에 여러분이(나쁘다 좋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마음으로 중심을 지키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들이는 것을 다스려서 들이고, 내는 것을 다스려서 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통해서 두뇌에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른게 우리 마음 속에서 두뇌로 올라가면 두뇌에서 사대로 통신을 해서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오기도 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게 마음입니다. 바로 어려운 길을 리드할 수 있어서 훌륭히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증용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하면 조

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제자라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풀 한 포기 불교 아닌게 하나도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듣고도 들은 사이가 없으면서, 들은 건 분별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2등은 없고 1등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공부하는 데도 2등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1등이 되면 일체제불, 일체중생, 하다 못해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삼투해서 한마음으로써 들이 아닌 도리를 알면 그때에 비로소 부처님은 부처님이요, 중생은 중생이요, 풀은 풀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거기 놓지 않는다면 하나도 얻을 바가 없고, 얻을 것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일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구성되고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그 해탈할 수 없는 악

업, 선업이 과보가 되어 가지고 인과,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이 모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바로 그런 데서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다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서 녹여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부터 알아야 바깥세계를 알지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야 어찌 바깥 세계를 바로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이 한마음으로 너와 내가 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인연 지어온 모든 것들이 세포 하나 하나 위장, 척추, 골방, 심장, 위, 간장, 식도, 소장, 대장 등에 모두 집을 짓고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악은 악으로만 나가는 반면, 선은 돈을 주고, 악하게 하라 해도 안합니다. 그러나 악이 많고 선이 적으면 여러분 마음속, 몸 속에서 악의적인 문제가 수없이 나옵니다. 하는 일을 안되게 하고, 남을 증오하게 하고 남을 싫어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행의 원인입니다. 남을 때려 죽이

모습을 바꿔가면서 한 찰나에 응해 주시니 그것이 바로 천백억 화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안에서부터 제도를 해가지 바깥에 고달리면서 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실이죠. 항상 이 마음이 그렇게 총족되고 내가 이 이치를 완전히 알아야만 의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지리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며,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체가 다 그 한마음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또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다스리는 마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에서 벌어지는 경계, 팔족술이라면 풀을 때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이것도 분수, 저것도 분수 했듯이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의 어느 한 기능에서 만약에 파울을 일으킨대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도 한

끼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인의 심부름단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7

갖고 가지 못할 것을 평생동안 뒤쫓느라...

나의 소유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통 속에 가두고 있다. 중생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싸워 나갈 수 있는 무기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갈수록 더욱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몸 떨어질 때 가져가지도 못한다. 그런 것들은 나를 보호하는 방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뿐이다.

땀을 흘렸는데 한 톨 쥐고 갈 수 없다니 말이다. 또 물 아픈 줄도 모르고 혹은 병든 중에도 열심히 추구하고 지키고자 애썼던 권력이나 명예가 아무런 보람이 되지 못한다니 이걸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몸 떨어질 때에 이르러 되돌아 보면 마음 풀이머 살았던 그 많은 나날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허망하기도 할 것이다. 진작에 그럴 줄을 자각했다면 마음 편히나 살 것일.

아무리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그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 아니, 가지고 갈 수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동안 도둑맞을 염려없고 빼앗길 염려없고 잃어버릴 걱정이 없는 게 있다.

평생을 두고 물 쓰듯 평평 퍼내세도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게 있다. 몸 떨어질 때 가지고 갔다가 되 나을 때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 풀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욱 편해지고 자유스러워지는 게 있다.

재화·권력·명예를 다 합친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재화하고도, 아무리 많

은 재화하고도 바랄 수 없는 게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위대한 것, 어떤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다. 지혜의 보석이다. 이 지혜의 보석만큼은 갖고 있어도 잃거나 빼앗길 염려가 없으며 몸이 떨어진다해도 가져갈 수 있다.

니라 수단일 뿐인데 수단이 목적이 됨으로써 우리는 어느새 거기에 얽매어 주체적인 삶을 엮어내지 못하고 거꾸로 거기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수단을 쓰는 관리자가 아니라 수단에 발목이 잡힌 노예가 되는 셈이다.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로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관리자로 사는 지혜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남을 탓하지 않는 관리자로 살아야 한다.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지만 버릴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고 비우라는 것이다. 거기에 얽매인 마음의 사슬을 풀어 버리라는 것이다.

버리면 버린만큼 그 자리는 지혜의 보석으로 채워진다. 어떤 것보다도 값진,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을 지혜의 보석을 얻게 된다.

이왕 이익을 추구할 바에는 모든 이익을 다 싸잡을 단 하나의 이익,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줄 단 하나의 욕구, 그러한 참된 이익 참된 욕구를 추구하라. 재화나 권력이나 명예나 하는 것들이 빛을 잃고 말 그런 이익을 쫓으라.”

평생을 기울여 아무리 많은 재화를 모았다고 해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단 한 톨도 손에 쥐고 갈 수 없다. 명예가 아무리 드높았다고 해도 그때가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천하를 좌지우지할 권력을 지녔다고 해도 몸 떨어질 즈음엔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 평생 재화를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피

아무리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그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 아니, 가지고 갈 수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동안 도둑맞을 염려없고 빼앗길 염려없고 잃어버릴 걱정이 없는 게 있다.

평생을 두고 물 쓰듯 평평 퍼내세도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게 있다. 몸 떨어질 때 가지고 갔다가 되 나을 때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 풀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욱 편해지고 자유스러워지는 게 있다.

재화·권력·명예를 다 합친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재화하고도, 아무리 많



결국은 다 놓고 가야할 것을 위해, 아무리 애절하게 원한다해도 속절없이 버려야만 할 것을 위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까닭이 무엇이랄 말인가.

이왕이면 가져갈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게 바른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놓고 가야할 것은 허투라도 빨리 놓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시 바빠 쟁겨야 할 것이다. 그게 현명한 일이다.

논고 갈 때 놓고 가더라도 사는 날까지는 지니고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한다. 그렇다. 삶이란 곧 소유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소유하고 쓰는 것과 얽매어 있는 것은 다르다. 소유와 소비는 목적이 아

협찬 : 이승진